

충장축제 월드페스티벌로 키우고 풍류 체험 콘텐츠 확장

광주시 '펀시티 광주' 조성 계획

충장 월드 퍼레이드 연중 진행

MZ세대 타겟 예술여행 거점 조성

케이팝 거리 야간 명소 육성

위드 코로나 대비 홍보 마케팅

광주시는 9일 '노점도시'에서 탈피한 재미있는 도시 '펀시티(Fun-City) 광주'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충장축제를 세계적인 월드페스티벌로 확대하고, 선비 풍류 체험관광, 케이팝 거리 활성화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인프라 조성 사업을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충장축제, 월드페스티벌 진화=광주를 대표하는 '추억의 충장축제'를 지역 축제 범위를 넘어선 세계적인 축제로 격을 높이기로 했다. 가장 '충장 월드 페스티벌'은 기존 인기 프로그램인 '추억의 테마거리'와 '버스커즈 월드컵 인 광주', '충장 월드 퍼레이드' 등을 연중 진행한다.

또 선비의 풍류문화를 주제로 길 위에서 즐기는 '풍류 온더 스트리트'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무등산 호수생태원 일원에서 운영한다. 누정·생태 자원과 퍼포먼스, 체험 등 선조의 멋과 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즐길거리로 만들고, 예술관광과 결합한 신풍류 체험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활기 넘치고 스마트한 관광생태계 조성=국내외 청소년과 청년을 타겟으로 한 신시대(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을 조성한다. 광주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해 가족 단위 국내 예술여행 관광객을 우선 유치하고,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케이팝(K-POP)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국내외 청

소년이 광주를 찾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교류형 체험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 여행 리더그룹으로 떠오른 MZ세대들이 여행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리한 모바일 환경이 갖춰진 스마트 예술여행마을도 시범 구축한다.

충장으로 내 '케이팝(K-POP) 거리'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청소년살다자이센터 외벽에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하고 화려한 빛들을 수놓아 도심 야간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팬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케이팝 팬아트 공모전'과 '케이팝 관광기념품' 등을 광주 관광의 핵심 홍보콘텐츠로 활용하고, 케이팝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충장으로 상권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상무지구 국제회의 복합지구 인접지인 서창한옥마을 일대로 '관광자원화'된다. 한옥문화관 주변과 만귀정을 엮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고, 백마산 및 영산강변 일대 일출·일몰 전망 지점 및 소원성취길 등도 조성한다. 서창지역은 관광명소화를 통해 인근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활성화하고, 마이스(MICE)행사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고풍 기대승 선생의 삶과 학문을 중심으로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월봉서원 선비문화 체험복합관도 건립한다.

◇국내 관광객 유인 홍보 마케팅 전략=광주시는 단계별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관광수요가 국내 관광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관광객의 광주 방문 횟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홍보 마케팅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2년 '광주 방문의 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광주 여행을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유명 연예인과 함께 하는 '광주 관광 붐업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해 지역 및 전국 단위 공중파를 통해 송출한다. 방송 콘텐츠



광주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구 충장축제를 국제 규모의 '월드 페스티벌'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날 1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일원에서 '힐링 YES 충장축제'를 주제로 열린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모습.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영상, 사진, 노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용 콘텐츠 등으로도 제작한다.

또 편리하게 도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 2석, 디지털 가이드(다국어, 수어) 기능을 갖추고

다채널(유선, 인터넷, 모바일) 예약 발권시스템을 제공하는 무장애 시티투어버스도 운영한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그간 문화예술과 여행 비즈니스가 합

계 성장하는 광주관광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해 왔다"면서 "2022년은 여행객들에게 사랑 받는 '관광 도시, 광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 윤석열-김종인-이준석 3각 편대 대항마 카드 고심

김종인 맞상대 송영길 대표 부각

이해찬·유시민·김영희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에 맞설 대항마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선 선대위 '원톱'을 맡은 김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등이 편대를 짜 활동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각각 대항마를 붙여 '1대1' 맞대결 구도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딱 떨어지는 당내 카운터파트가 없다는 현실에 조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사퇴 이후 외부 인사 영입도 여의치 않아진 상황이 겹치며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9일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당연히 맞고 김 위원장의 상대는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는 김영희 후보부장이나 새로운 인물들

영입해서 상대하는 방향으로 구도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삼일 선대위원장으로, 조동연 전 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으로 낙마함에 따라 선대위 '원톱'을 맡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대항마에서 있다는 게 당 설명이다.

다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의도 차르' 김 위원장을 맞상대할 무게감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노련한 김 위원장의 행보는 민주당의 주요 경계 대상이다. 부임하자마자 '손실보상 100조원' 등으로 치열한 대선 정국에서 '메시지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송 대표와 김 위원장의 맞상대 구도가 형성된다면 우리로서는 '다행'이라며 "개인기 대결로 가면 안 되고 당이 정책 기조로 송 대표를 뒷받침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전노장' 이해찬 전 대표의 이름도 재소환되고 있다. 선대위의 다른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총선 대승을 이끄는 등 워낙 선거의 달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중도 확장력과 과거 이

미지 등이 전 대표의 약점을 거론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준석 대표는 당연적으로 삼일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홍보미디어본부장직을 스스로 자정할 정도로 젊은 층을 겨냥한 소구 능력을 자신하는 인물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최근 영입한 MBC 스타 PD 출신의 '팔집 아저씨' 김영희 후보부장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김 본부장의 역할에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마침, 여권 내 '소문난 스피커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날 정치평론을 재개하면서 그의 역할론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이날 MBC 라디오에 나온 유 전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생존자", "발전도상인", "오프로드 차" 등 자신만의 표현을 써가며 한껏 추켜세웠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은 외곽 지원 쪽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평론 재개도 이 후보 측과의 교감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8%·윤석열 36%

4개기관 조사...한달만에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가 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